

ICT산업 HOT CLIPS

ISSUE 2019.06.05
N0.23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01 ICT산업 Brief

- 기고문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공장
- 동향 |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표준화 작업 활발
빅데이터 기술 트렌드와 특허 동향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
- ICT Espresso

02 ICT기금 Scrap

- 인포그래픽 | 우수성과 현장인터뷰 안내
- 알림 Talk | KCA 기금사업관리본부 일정안내
-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 부정수급예방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안내
- Invitation

03 Job Talk

- 수행기관 채용정보
- 일자리 정책 및 뉴스
-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ICT 산업 HOT CLIPS

ISSUE 2019.06.05 NO.23

Contents

01

Chapter

ICT산업 Brief

기고문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공장

동향 |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표준화 작업 활발

빅데이터 기술 트렌드와 특허 동향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

ICT Espresso

02

Chapter

ICT기금 Scrap

인포그래픽 | 우수성과 현장인터뷰 안내

알림 Talk | KCA 기금사업관리본부 일정안내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부정수급예방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안내

Invitation

03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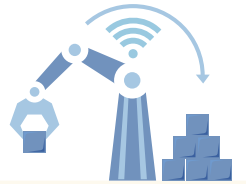
Job Talk

수행기관 채용정보

일자리 정책 및 뉴스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사물인터넷은 사물, 사람, 서비스의

세 가지 환경 요소에 대해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공간의 연결망으로 정의한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공장

글 박태형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통계동향연구실 책임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제조업이라 할 만큼, 초연결·지능형 공장자동화(스마트팩토리)가 전세계 제조업의 지향점으로 부상하면서 제조업에서 SW융합기반의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AI, Big Data, 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 Mobile 등 SW신기술의 융합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제품·서비스, 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혁신의 촉매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7년 의결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2018년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사물인터넷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와이파이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와이파이 채널 추가 확보, 사물인터넷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물인터넷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 현재 개발 중인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 사람, 서비스의 세 가지 환경 요소에 대해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공간의 연결망으로 정의한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¹⁾

1) KISA(2016).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NET Term.

IDC의 사물인터넷 시장전망²⁾을 보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8년 32조 3,0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성장했으며, 2017~2022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하면서 52조 9,5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 시장 중 서비스 시장이 2018년 8조 8,074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시장이 8조 593억 원으로 24.9%, 커넥티비티 시장이 7조 7,606억 원으로 24.0%, 소프트웨어 시장이 7조 6,794억 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및 추이 〉

(단위 : 억 원)

구분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CAGR ('16~'22)
연결성	77,606	91,861	106,370	120,214	136,386	15.3%
하드웨어	80,593	89,250	98,770	108,519	115,967	9.6%
서비스	88,074	102,271	117,361	132,325	146,408	13.7%
소프트웨어	76,794	89,939	102,964	117,395	130,825	14.2%
합계	323,067	373,321	425,465	478,453	529,586	13.2%

※ 자료: IDC, 2018.10

2) IDC는 사물인터넷 시장 조사를 위해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연결성 (Connectivity)	하드웨어(HW)	서비스	소프트웨어(SW)
- 유무선 통신 기술	- 모듈/센서 - 보안 HW - 서버 - 스토리지 - 기타 HW	- 서비스형 콘텐츠 - IT 및 구축 서비스	- 분석 SW - 응용 SW - 사물인터넷 특화 플랫폼 - 보안 SW



하드웨어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결성,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물인터넷 관련하여 조사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SPRI의 SW산업 실태조사³⁾에서, 제조업 내에서는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주로 많이 활용(42.6%)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37.2%), 빅데이터 서비스(22.6%)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SW신사업 분야별 적용 산업 비교에 있어서도, 사물인터넷이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

그러나 제조업에서 스마트센서를 포함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 수준은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전략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이 약 54.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여 초기 구축 및 실행단계에 있는 기업 비중이 22%,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전사적 차원에서 도입 및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2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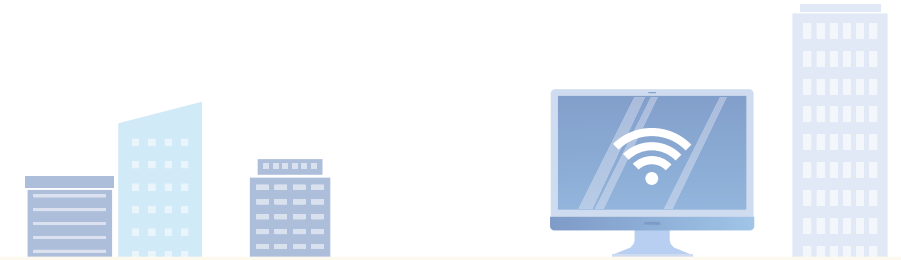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SW신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기업의 추진 사례를 조사⁶⁾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MES 구축을 통한 공장 자동화, 비정상 공정운전 사전탐지, 생산효율성 증대, 작업공정 재설계 및 표준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생산비 절감이나 불량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자동화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PRI, 2017년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https://stat.spri.kr/posts/view/22350?code=stat_sw_reports)

4) 2018년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17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물인터넷 관련 비중의 순위는 변화가 없음

5) SPRI, 2018년 산업별 SW기반 혁신활동 조사(내부자료)

6) SPRI 내부 자료로서, 22개 제조기업(대기업 7개, 중견기업 15개)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추진 사례를 조사



공장 내의 다양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해 냄으로써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나아가 자율운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조업에서 사물인터넷은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스마트팩토리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산업 단지를 10곳에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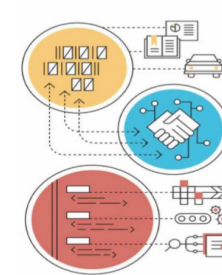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수요기업과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이나 5G,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함께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제조기업과 SW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SW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장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SW신기술을 적극적 도입·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표준화 작업 활발

○ 서론

- ▶ 블록체인이 금융, 핀테크, 공공 및 보안 분야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보안성 향상, 거래 속도 향상, 비용 감소, 가시성 극대화 등의 장점과 기능이 있기 때문임.
- ▶ 이처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이 가능한 만큼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표준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① Storing digital records

단순한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산도 디지털 정보화시켜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고 관리·감독하기 용이한 형태로 저장

② Exchanging digital assets

사용자들은 새로운 자산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거래소, 지급·결제 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

③ Executing smart contracts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과정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

기본규칙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코드화하여 기록

실행 조건만족 시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행하고 해당 절차를 감독

확인 계약의 실행여부를 제3자 개입없이 실시간으로 인증

▲ 블록체인의 주요기능

※ 출처: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동향

- ▶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 등이 경계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 대상에는 용어 정의, 플랫폼, 보안기술, 구현 알고리즘, 응용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함.
- ▶ 이러한 항목의 표준화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결정하고 기술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돕는 것임.
- ▶ 이에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2016년 9월에 설립된 ISO/TC 307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임.

- ▶ ISO 기술위원회 산하의 연구반은 표준화 아이টে을 발굴하고 표준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작업반은 표준 개발을 착수하고 주도하고 있음.
- ▶ ISO/TC 307은 블록체인 이슈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현재 4개의 작업반 및 2개의 연구반이 결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물리적인 자산도 디지털 정보화시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은행과 증권거래소 등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자산을 등록할 수 있는 등의 블록체인의 주요기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 중에서도 금융 산업에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 이에 블록체인을 금융에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함. 국내외 금융권에서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음.
- ▶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는 2014년 설립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핀테크 스타트업 R3가 운영하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세계 70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민·신한·우리·KEB하나·기업은행 등 5곳이 참여하고 있음.
- ▶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부터 리눅스 재단과 IBM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시스코, JP모건, 인텔, 웰스 파고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 국내에서도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운영중임.
- ▶ 16개 주요 은행과 20여개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고객 인증, 위변조 여부 검증,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등에 집중할 예정임.

○ 결론 및 시사점

- ▶ 블록체인은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를 흔들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작업은 시작단계로, 신기술이 신뢰감 있고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임.
- ▶ 블록체인의 보급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블록체인 표준화가 시급하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 여부도 국제 표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제표준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포럼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블록체인 복합 교육공간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1] 박정호,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년)
 [2] 차홍기,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년)

빅데이터 기술 트렌드와 특허 동향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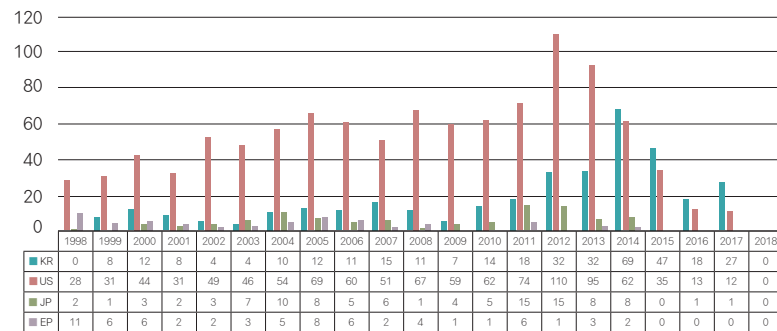
- ▶ 빅데이터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신기술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술 및 특허 동향

- ▶ 현재 빅데이터 기술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로 지능형 분석을 통한 '변화 예측형 빅데이터'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 ▶ 현재 데이터 간 연계활용, 실시간 분석 능력 향상, 지능·예측형 분석 기술 확보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유의미한 정보 획득이라는 기존 빅데이터 기술의 목적이 변화 예측으로 바뀌고 있음.
-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비즈니스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판단 및 학습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기술은 필수 개발 기술로 평가되고 있음.
- ▶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는 수집, 저장과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사물인터넷 기술이 확산되면서 빅데이터 수집과 저장 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실시간 처리 기술 등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 실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기업에서 클라우드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 국내 빅데이터 기술 개발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술의 수준도 아직 낮은 편임.
- ▶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 및 통신 산업 관련 도메인 지식 기반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의 상용화 등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 비정형적 데이터와 관련된 예측 연구는 시작 단계이고, 다음, 솔트룩스 등이 자체기술로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국내는 아직 기술 개발 수준은 초기 단계이지만, 특허 등록 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빅데이터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국가별 특허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4년에 폭발적으로 많은 특허 등록 건수를 보인 후 꾸준히 높은 특허 등록 양을 보이고 있음.
- ▶ 이는 빅데이터 기술 특허등록 전체 건수 2824건 중 1052건(66%)을 차지한 미국보다는 낮지만, 최근 들어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연구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빅데이터 기술 분야의 상위 출원인은 미국 IBM(201건)이며, 다음으로는 일본 히타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등으로 나타났음.
- ▶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은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기업이 주도 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별 특허등록 현황

※ 출처: 빅데이터 특허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결론 및 시사점

- ▶ 빅데이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기업 및 주요국가들도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과 연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 ▶ 빅데이터 기술이 향후 기반기술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 빅데이터 분야의 인력 양성과 투자를 위한 종합적인 고려 대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도 필요함.
- ▶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특허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빅데이터 안전한 활용 활성화(한국인터넷진흥원)
 빅데이터 선도 및 활성화 기반구축(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1] 김수연 외 2인, 빅데이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동향브리프(2018년)
 [2] 박성혁, 빅데이터 특허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년)

03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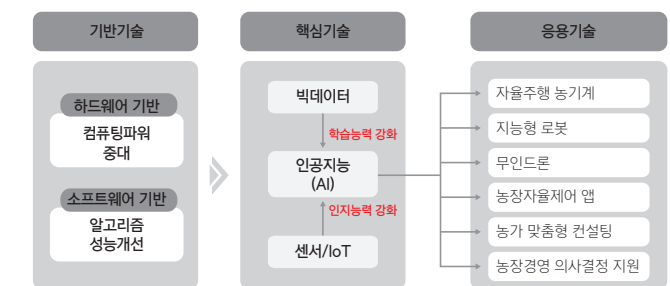
○ 서론

- ▶ 농업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이지만, 시장개방, 농가 소득의 정체, 농가 인구의 감소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음.
- ▶ 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접목됨.
- ▶ 기술이 접목되어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팜임.



○ 스마트팜 핵심 기술 및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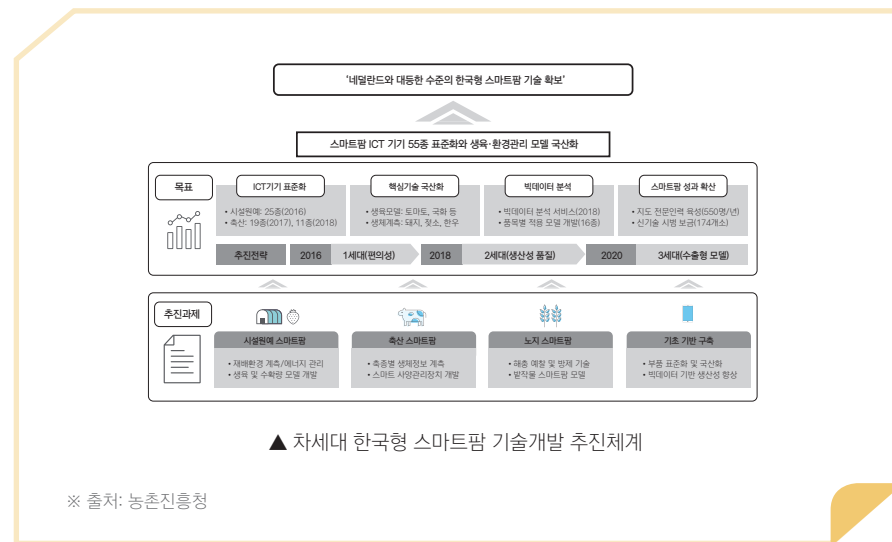
- ▶ 스마트팜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시스템으로부터 유통과 소비, 농촌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주기적 과정의 디지털 과학화와 지능정보화를 의미함.
- ▶ 스마트팜을 통해 농사기술이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되고 객관화되며, 반복적으로 시행착오와 개인의 노하우를 따라 이뤄졌던 농사 방식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될 수 있음.
- ▶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융합과 공유, 개방을 모토로 국가마다 농업여건과 환경을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최적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 체계

※ 출처: 김연중 외(2017)

- ▶ 스마트팜 기술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되어 왔음. 특히, 네덜란드는 온실시공, 센서 기술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
- ▶ 영국은 정밀 농업, 무인 항공기 분석, 가축 모니터링 및 수확 관리와 같은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비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독일은 작물 수확량 예측, 가축 감시 및 작물 정찰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에 활용하고 있음.



- ▶ 국내에서는 농업에 접목한 미래 대응형 농업시스템을 마련해 스마트팜을 수준별로 모델화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기술의 단계적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 현재 국내에는 1세대 스마트팜 모델이 현장에 보급되고 있음. 2019년에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로 생체정보와 생육모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는 다양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 1세대 스마트팜을 통해 농민들은 동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농작물의 상태와 농장의 재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임.

- ▶ 그러나 실제로 농사경험이 적은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 IC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농식품부는 기술개발의 결과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 확대와 국내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올해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 국내에 스마트팜 기술이 잘 접목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비닐하우스 위주 국내 시설원예산업의 특성과 지금까지의 노하우, 품목별 재배여건 등을 고려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이 필요함.
- ▶ 스마트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생산·유통·소비부문 뿐 아니라 후방산업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경영성과 관리도 자동으로 이뤄져야 함.
- ▶ 국내에서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가 결합되어야 하며, 전후방 산업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 ▶ 인공지능, 딥러닝 등 현실 적용 기술과의 연계와 함께 법, 규제, 제도, R&D, 인력육성 등의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함.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한국정보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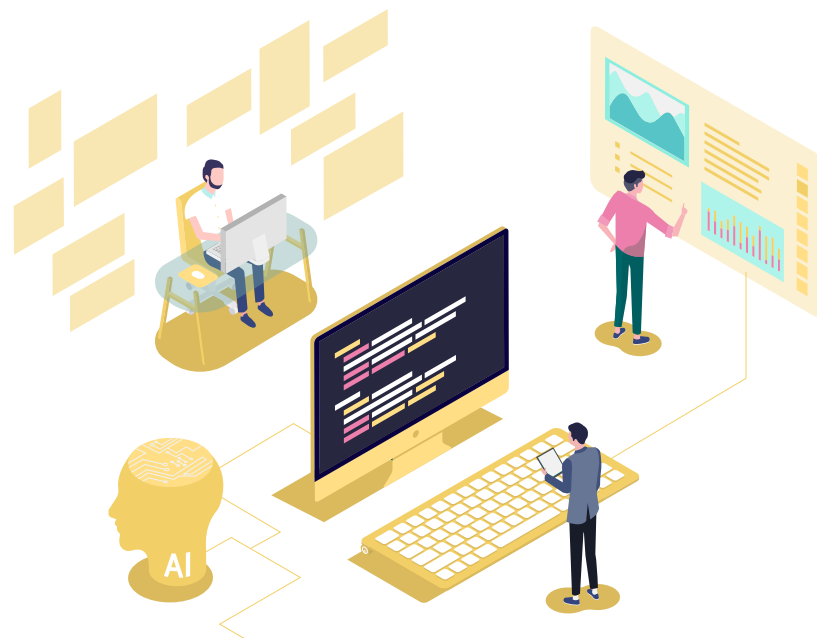
●●● 참고문헌

- [1] 김연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팜 기술 및 정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2018년)
 [2] 김상철,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9년)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

○ 서론

- ▶ 매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최근 연구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 국내외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임.
- ▶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인공지능 활성화 정책

- ▶ 인공지능은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
- ▶ 최근 인공지능은 단순 인지능력 연구개발에서 스스로 수행한 학습을 더해 추론 및 예측을 하며, 향후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이처럼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지능화된 혁신 서비스들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 국가별 인공지능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범캐나다 AI전략 수립을 통해 AI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인재 육성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 일본은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통해 3단계에 걸친 AI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저변 확산을 계획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무인운송·배송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산업의 기반 정책을 추진중임. 중국은 스마트 제조 및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결합된 과학기술 발전계획 및 2025년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을 경제 변화의 핵심 추진력으로 평가, 혁신적인 인공지능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또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신성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 영역에서 세계 선두로 진입했음.
- ▶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 R&D 촉진, 혁신 장벽 제거 등의 4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중임.
- ▶ 국내도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 ▶ 정부는 2019년 1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육성 전략 및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한 5개년 실행계획임.
 - ▶ 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전 분야와 인공지능 간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패러다임의 혁신이 전망됨.
- ▶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습데이터를 구축·공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 공공,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정부주도로 발굴·생성·공유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야함.
- ▶ 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도 필요함. 민간과 공공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 프로젝트 발굴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구축(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SW개발환경조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지식베이스) 구축(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역량강화(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 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고문헌

- [1] 문용식,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주요국의 핵심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IT&Future strategy 보고서' (2018년)
 [2] 국경원,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년)



디지털콘텐츠

‘애니·웹툰에 VR·AR 융합’…콘텐츠서비스 수출대전 열린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콘텐츠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메듀테크 기술을 탑재한 혁신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장이 마련된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

UHD

포스텍 연구팀, 메타물질로 가상현실기기용 디스플레이 개발

투명망토로 알려진 메타물질(자연계에 없는 성질을 가진 인공물질)을 이용해 가볍고 활용성이 뛰어난 가상현실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원문보기 : <https://news.imaeil.com/People/2019052817>

기후변화

“2100년까지 해수면 최고 2.38m 상승 가능성”

전 세계 해수면이 2100년까지 최고 2.38m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억8000만 명이 집을 잃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AF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원문보기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9992>

차세대자동차

5G 자율주행차시대, 이통업계 ‘지도’ 전쟁

5세대 통신(5G)의 초고속 초 저지연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예고되면서 이를 겨냥한 이동통신업계의 이른바 ‘지도’ 전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ews24.com/view/1182549>

정보보안

자율주행차 ‘무선 이중보안’으로 해킹과 도난 사전방어

무선 네트워크 및 IoT 보안 기업 노르마(대표 정현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보안 지원 과제를 수주, 자율주행차의 이중 보안 시스템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원문보기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90527800011>

SW

2분기 공공부문 보안 SW 구매 등에 54억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9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치를 3월말 발표했다.

원문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79880&kind=1>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예비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4.8~5.27)를 실시해 70명을 선정(170명 응모)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79955>

융복합소재

열전소재 내부의 나노입자 생성·성장·분리 메커니즘 규명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유광수) 도환수 박사과 부산대 재료공학부 이정우 교수는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나노입자를 함유한 칼코젠 화합물 합성기술 및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8933>

스마트디바이스

환자중심 헬스케어 시대, 웨어러블 기기와 재택진료 도입 가능할까

환자중심 헬스케어는 미래 보건의료 분야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녹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재택진료 등 환자관리 패러다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원문보기 : <https://www.medigatenews.com/news/2466527>

5G

정부, 아태지역에 국내 5G 핵심 노하우 공유한다

정부가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국내 기술을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첫 5G 이동통신 상용화 경험을 아태지역 국가와 공유하는 자리인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를 28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진행된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

빅데이터

“AI·빅데이터는 대학생 필수 학문”

“이제 문과생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공부해야 해요.”(오세정 서울대 총장)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9’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정착을 위해선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2385031>

클라우드

금융위, 금융사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돕는다

금융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클라우드(CLOUD)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등 활용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 관련 향후 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56905/>

IoT

글로벌 ICT·IoT 전문 전시회 ‘컴퓨텍스 타이베이’ 28일 개막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사물인터넷(IoT) 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을 위한 무역 전시회 ‘컴퓨텍스 타이베이’(COMPUTEX TAIPEI, 이하 컴퓨텍스)가 28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aipe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ICC)에서 닷새 일정으로 개막했다.

원문보기 : <http://expoc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722995346>

지능정보

특허청, AI 기반 특허넷 개발 사업 착수…올해 98억 투입

특허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특허행정 구현에 나선다. 특허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을 적용해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차세대 특허넷 개발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허넷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특허행정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원문보기 : <http://ilyoweb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8551058148>

차세대의료

문재인 대통령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집중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R&D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면서 “우리 의료기관들이 미래의료기술 연구와 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kormedi.com/1293456/%EB%AC%B8%EC%9E%AC%EC%9D%B8->





우수성과 현장인터뷰 안내

목적

ICT기금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의 사업 성공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지원

대상

'18년도 ICT기금사업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사업 (총 38건)

일정

'19.05.31.(금) ~ '19.06.21.(금)
/ 세부일정은 상호협의를 후 확정

활용

- 우수성과 국·영문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우수성과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우수성과 국문사례집



우수성과 영문사례집



알림 Talk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의 ICT기금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한
채용정보 조사(상시)**

목적 : 전국 이공계 대학의 관련 학과에 배포함으로써 ICT산업 일자리 지원 및 매칭

내용 : ICT기금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조사·수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18년도 ICT기금사업(비R&D) 우수사례
현장인터뷰 실시**

내용 : 2차례의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현장) 실시

일정 : 심층인터뷰(5.31~6.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ICT기금사업

캘린더

0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 NIPA 2019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모집 마감	5	6	7 • NIPA 2019년도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을 위한 시니어전문가 모집 마감 • KISA 2019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마감 • KCA 2019년 상반기 '송파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마감	8
9	10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 연구 공모 마감 • NIPA 2019 태국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 모집 마감 • KCA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마감 • NIA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개최	11 • KISA 2019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 정착지원 참여 기업 모집 마감	12	13	14 •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마감	15
16 • KISA KISA-KB 핀테크 해커톤 참가자 모집 마감	17	18	19 • KISIA 2019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모집 마감	20	21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9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ICT분야) 수요 기업 공모 마감	22

ICT기금 소개



ICT기금은 콘텐츠·방송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ICT 신사업 육성·추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창업·성장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 및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 등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ICT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ICT기금의 용도

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접근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주파수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정보통신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 인력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고 5배** 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 됩니다.

보조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하면 제재(환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대상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반환(환수)합니다.

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제재부가금은 위반행위 등에 따라서 환수되는 보조금의 최고 5배 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혁신적 포용, 디지털·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2019년 6월 10일(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기조연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서의 디지털 포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 주제발표1**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시티즌십
협동조합 소요 이재포 이사장
- 주제발표2**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 토론**
좌장 경희사이버대학교 임정근 교수
패널 건국대학교 김양은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배 교수
 디지털터러시교육협회 박일준 협회장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 공동주최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PAPERLESS 2.0 컨퍼런스 2019

2019. 6.11(화)

Paperless 2.0 컨퍼런스 2019
코엑스 그랜드볼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2019. 6. 12^(수), 09:00~12:00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중앙정보관 219호



교육개요

주 관

중부정보보호지원 센터

참가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처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안다빈 주임

T: 043-210-0870

E-mail: issc@cbkipa.net

기타

참가비 및 주차비 무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09:00~09:20	참가자 현장 등록	
09:20~09:30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소개 및 개회사	이중구 센터장(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09:30~10:30	개인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김기환(정보보호인정협회 부회장)
10:30~10:40	Break	
10:40~11:40	인공지능과 정보보안	신경아(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ICT기금 수행기관 채용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년 2차 정규직 및 실무지원직 채용 (5.23-6.7)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인적자원개발센터 계약직 채용 (5.24-6.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년 ETRI 하계 연구연수생
(청년인턴) 채용 (5.27-6.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상반기 수시 직원(육아휴직대체
일반계약직 및 위촉계약직) 채용 (5.28-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채용 (5.29-6.12)

채용정보 원문을 보고싶다면

"Click"

Click



일자리 정책 및 뉴스

일자리 정책

1 전국 일자리 전문가가 함께 서울 소프트웨어 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추진

- “서울 소프트웨어 일자리 네트워크”는 5월 24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유관기관·사업주 및 고용부 “지역산업 고용 포럼” 전문가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의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 “서울 소프트웨어 일자리 네트워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로 지난 3월 7일 발족하였으며, 서울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서울중소벤처기업청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네트워크는 고용부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에 총 30개를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역·업종 일자리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서울 네트워크는 지난 2개월 간 10여 회의 실무 협의 및 사업주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소프트웨어 일자리 문제 해결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네트워크 논의 결과에 대해, 지역별 일자리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산업 고용포럼” 위원들이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 “소프트웨어 기본능력 측정 평가제도(TOPCIT)”를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변형하여, 기업들이 이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구직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5.24)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941

일자리 뉴스

2 사람 중심 일자리, 남녀 모두 평등한 일터!

- 고용노동부는 제19회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5.25.~31.)”을 맞아 5월 27일(월)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 시상은 고용에서의 성 평등, 모성 보호,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운영 등 남녀 고용 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하여,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올해 시상 규모는 총 36점으로 남녀 고용 평등과 일·생활 균형 실현에 앞장 선 유공자 12명과 우수 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 기업 8개소를 선발해 시상했다.

- 시상식에 앞서 1부 순서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너와 나의 삶이 나아지는 남녀 고용 평등 일터, 일·생활 균형 일터”라는 표어 아래 유인경 전 경향신문 기자가 진행하고, 우수 기업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한독,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주)가 사례 발표를 했다.

- 또한 손아람 작가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도 참석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이 노동자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5.27)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945

3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질적 성장을 보면 그동안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 이훈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정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딛고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담당자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5.23)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9936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쿠도커뮤니케이션즈
	채용분야(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루션개발 및 기술지원' SW개발 • SW개발(ETL 툴 유경험자) *경력직(5~20년) • 시큐리티사업부(기획,마케팅/영업/CCTV유지보수) • IT/보안 마케팅
	공고기간 2019.05.27. ~ 채용시까지
	채용문의 김재훈 / 02-521-3887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zf_user/search?search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정보통신과








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크리젠솔루션
	채용분야(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드로이드 앱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금융솔루션 유지보수 개발
	공고기간	2019.05.15. ~ 채용시 마감
	채용문의	장어람 / 02-3452-5952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정보통신과








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주)디지털엔터테인먼트
	채용분야(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GM/게임 기획/마케팅 (영어 가능자 우대) •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공고기간	2019.05.13. ~ 2019.05.28.
	채용문의	황현호 과장 / 053-653-3511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zf_user/search?search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정보통신과



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